**꾸준함과 반복의 성과**

1990.2.25일 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진형

201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동차합격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201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박진형이라고 합니다. 시험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2013년 6월로 이번에 거의 3년째 공부에 시험을 합격한 셈입니다. 저는 1차 시험에서 고배를 많이 마신 편으로 3년의 시험기간동안 3번의 1차 시험을 봤고 2번 떨어졌으며 마지막에 1차 2차를 동시에 붙어 동차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쓰게 될 이야기들은 1차에 한번 떨어진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격적으로 실력이 오르게 되는 시점도 두 번째 1차 시험을 떨어진 시점부터이며, 이 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제 글이 많은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수험기간 동안의 공부방식

 2013.6~2014.3의 첫 번째 1차 시험기간은 사실 시험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말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고작 6개월의 기간동안 1차의 방대한 공부량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재무관리와 고급회계를 제외한 모든 1차 과목의 기본강의를 듣긴 했지만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차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2014년 이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1차 공부 기간동안 1년 휴학을 했으며,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는 재무회계와 세법, 재무관리와 같은 2차까지도 계속해서 봐야 하는 과목들을 들었으며 9월 이후부터 10월 사이에 상법과 경제학, 경영학과 같은 1차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객관식 강의를 듣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1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1차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공부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CPA 1차 시험의 특성은 막대한 공부량입니다. 한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새 이전에 공부했던 과목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분명 이전에 공부한 부분임에도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CPA의 공부량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한 과목 한 과목을 빠르게 공부하되 1차의 모든 과목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전략을 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되 한 과목 당 약 1주~2주의 기간을 배정하여 그 과목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식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가령 재무회계의 경우는 1주일, 세법은 2주일, 재무관리는 1주일 그리고 한번 회전시키는 데 총 1달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니 시험 보기 전 까지 몇 번 반복을 할 수 있는지가 잡히고 어느 정도 밀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날 수록 회전 속도도 빨라져 막대한 공부량에 따른 기억 소멸의 문제도 해결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1차 전체과목 회전에 약 2달의 시간을 잡고 계획을 세웠으나 회전 시간이 점차 빨라지면서 1차 시험 직전에는 3주마다 한번씩 1차 전체 공부량을 회전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회전에 걸리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그만큼 이전에 공부한 것을 잊어버릴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서 기억 loss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1차를 두 번 떨어진 시점에 저는 소위 ‘신의 한 수’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1차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동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기도 하셨고 어차피 2년 정도 공부한 것 3년째 까지 해보자라고 생각한 시점에 그렇다면 어설프게 다시 1차를 공부할 바엔 2차 공부를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겹치는 과목들은 재무회계, 세법, 재무관리와 같이 대부분 1차와 2차에서 모두 중요한 과목들이고 지금 2차를 준비해 놓으면 1차를 붙었을 경우에 이후 공부가 훨씬 편해질 터였습니다. 2015.4월부터 감사를 제외한 모든 2차 과목의 강의를 들었으며, 위의 반복 학습 방식으로 2번 이상 회전시켰습니다. 이 2회전이 끝난 이후에는 1차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었으며, 그만큼 상법과 같은 1차에서 점수를 많이 벌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어 1차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차 대비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3개월간의 기간동안 감사 강의만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2차 과목 전체에 대한 복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다른 동차생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선행학습이 이번 동차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3. 수험기간 동안의 생활방식

 수능과 마찬가지로 CPA 시험도 최소 1년반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장기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시간도 공부시간이지만 공부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한 시간은 9시였고 끝내는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약 하루에 점심 저녁 시간 제외 11시간 정도를 공부에 쏟았습니다. 이렇게 공부 시간을 많이 잡은 대신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론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시 이후의 시간에는 평소에 좋아하던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11시간을 공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험난한 하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쉬는 시간 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을 잡고 그 날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날에는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가는 형태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시간 운영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쉬는 시간을 만들어놓은 것도 결국은 정한 시간을 더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당근과 같은 용도였습니다. 즉, 11시간을 공부에 더 확실히 집중하기 위해 11시 이후에 쉰 것이었으므로 쉬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제일 위험한 상황이 노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는 시간을 줄이는 형태였는데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1시 이후에는 불 끄기 등 노는 시간 조절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쉬는 날의 경우에도 그 여파가 공부하는 날까지 퍼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는 날과 쉬는 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다른 날에도 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는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했으며, 제 개인적인 성향 상 일정 틀 안에 박혀서 강제로 공부를 해야 하는 종합반 보다는 제 스스로 강의 시청과 개인 공부 시간 조절이 가능한 단과 강의 혹은 인터넷 강의 수강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집을 왕래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에 입사해서 공부하였으며 이 덕분에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과목 별 학습방법

 과목 별 학습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대부분의 공부를 문제풀이 중심으로 했습니다. 문제풀이가 출제 빈도수가 높고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알기 쉽다는 측면 뿐 아니라 그냥 서브노트를 보는 것 보다 집중도의 측면이나 복습의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반복의 방식 또한 서브노트와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기본 전제입니다. 굳이 많은 책을 살 필요도 없이 한 책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 만으로도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를 풀 때 가급적 책에 직접 풀지 말고 공책 등 다른 곳에 풀이과정과 답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리거나 주의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살짝 체크를 해 놓으신 뒤 이후 반복해서 풀어볼 때에 그 체크를 참고해서 반복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과목에 대해 공통되는 제 학습방법이었습니다.

재무회계(1차, 2차): 재무회계는 분개를 머릿속에 기억해놓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차변/대변의 구조와 계정과목 이름을 기억해 놓으면 헷갈릴 경우 직접 분개를 끊어보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 문제를 풀 때도 처음에는 계속 분개를 끊어보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분개 없이 계산 만으로 풀 수 있더라도 분개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특히 고급회계에서 분개 방식은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연결과 같은 머리로만 생각하기 복잡한 부분은 분개를 이용함으로써 주어진 숫자를 정리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법(1차, 2차): 세법은 특히나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세법 자체도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양이 많을 뿐더러 공식 등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하여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면서 공식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처음 공부할 시에도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사님들이 찍어주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강사님들이 설명해주시는 ‘문제풀이의 틀’을 문제를 직접 풀면서 확실히 익혀놓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들의 틀이 마음에 안 든다면 최소한 자기 스스로 논리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틀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수록 틀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의 문제풀이 속도 차는 현격히 벌어집니다.

재무관리(1차, 2차): 재무관리는 세법과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실 때 공식과 그 논리적 도출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공식을 잊어버리더라도 논리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공식을 재 도출하는 방식으로 금방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공부 시에는 특히나 까다로운 재무관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개 재무관리 공식의 응용형 문제들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재무관리 공식의 논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재무관리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풀어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과목입니다. 세법이 공식의 이해를 위해 문제를 푸는 것이라면 재무관리는 공식이 응용되는 방식을 알기 위해 문제를 푸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공식을 외우신 이후에 여러 응용된 문제 형태를 접하여 공식의 사용 방식을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강사님이 찍어주신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원가관리회계(1차, 2차): 원가관리는 개인적으로 제일 사람을 많이 타고 기본적인 머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히 익히면 나머지는 결국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독해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공부 시간이 적게 드는 과목인 한편 문제 풀이 시간은 제일 길게 소모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일단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표준원가나 원가 배부 그리고 예산 편성 문제 등은 정형화가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숫자를 끼워넣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식으로 문제풀이 속도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가회계에서 번 시간을 가지고 관리회계에서 좀 더 문제를 꼼꼼히 보는 식으로 하면 문제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만회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여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관리회계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1차, 2차에서 합격 점수를 받는 데 무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1차): 경제학 또한 재무관리와 비슷합니다. 논리적으로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막상 문제로 보면 공식의 적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미시경제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좀 통하긴 하지만 거시경제학의 경우 사실상 그냥 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학 자체가 은근히 거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도 강사님이 집어주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경제학이 문제 분량은 많긴 하지만 집어준 문제와 그 해설을 보면 그걸 풀고 해설을 확인해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복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굳이 집어주신 문제 외의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 이상 풀어보는 것은 오히려 공부 범위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법(1차): 상법은 결국 외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오는 문제 추세들이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워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지라 최대한 서브노트 등을 통해 정리를 많이 해놓으시고 틈틈이 봐주시는 식으로 상법 구문들을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외우는 것 자체도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의 문제집을 위에서 설명드린 회전 주기의 방식으로 풀고 틀린 문제를 체크해놓고 틀린 지문의 내용을 서브노트에 적어놓고 이후에 다시 상법을 공부할 주기가 돌아오면 다시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상법에 나오는 지문 자체에 대한 친숙도를 높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식은 제가 구문을 그냥 외우거나 하는 것을 잘 못 하는 스타일인지라 어떻게든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고 외우는 게 쉽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1차): 공부량이 작다면 작다고도, 크다면 크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경영학입니다. 책이나 서브노트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놓은 것으로 간간히 시험문제로 나오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깊은 내용까지 공부하려고 한다면 경영학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철저하게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다른 헷갈리는 게 나와도 아는 것 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직행동론이나 마케팅, 생산의 경우 용어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철저하게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사(2차): 회계감사의 경우는 워낙 외울 것이 많고 동차 때는 특히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공부할 때 우선 책의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숙지하는데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각 파트 별 내용을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니 감사 책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감사를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지를 판단해가면서 내용을 외웠습니다. 강사님이 하신 ‘직접 감사를 해본 사람이 감사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직접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확인해봐야 하는 지를 생각해가면서 책에 나온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해가며 외우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5. 당부의 말

 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진 않습니다. 11시 이후엔 반드시 놀고 일주일에 한번은 꼭 놀았으니 계속 공부를 한 사람들에 비해선 시간 투자는 밀릴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합격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이러한 시간표를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정한 시간에는 ‘그냥 하는거지’ 하면서 계속 우직하게 공부를 했고 놀 때는 ‘논다고 했으니 논다’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투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공부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기 위한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합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인내심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오직 하고 싶은 것을 향해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세. 그런 ‘자기와의 싸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합격의 열매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